그대 自身에 眞實하라
그렇게되면 밤이지나면
낮이오듯
그대는 他人에 對하여
虛僞일수 없을것이다
(金 言)

外大學報

三 鎬 發行人
孫 炳 綸 編輯人

發行所
外大出版部

THE ARGUS PUBLISHED BY THE FOREIGN LANGUAGE COLLEGE OF KOREA

讀者에게 影響을 줄 글을 쓰라

學報 創刊 祭하여

學長 三 鎬

「재미있다」「옳은말이다」「유익한말이다」등의 그러나오지 않을 글은 차라리 쓰지 않는것이 옳다 글은 만이고 많은 생각이 다 다시 만하면 생각나는 말을 적은것이 글이며 좋은 생각없이 는좋은 글을 쓸수가 없는것이다 깨끗한 글을쓰기 위하여는 마음을 맑게 갖어야하며 풍부한 內容의 글을 쓰기 위하여는 知識을 넓이고 思索을 깊이하여야하며 讀者의 마음을 움직이고 感動을 갖게하는글을 쓰기위하여서는 쓰는 사람 自身에게 굳은信念이 있어야 된다 外大學生이 修養하는 目標는 무엇인가 修養高家 救國 救天下의 마지막 段階까지 이르러는것이다 이目標에이르기 위하여 말을 배우는 同時에 훌륭한 內容을 배우고 있는 것이라 修身 齊家는 文化의 基礎로서 重要하고 適切함으로써 되는것이고 治國 平天下는 이것을 發展함으로써 되는 것이다 即 첫째로修養이고 다음에는 表現이다 表現力을 養成함도 修養의 하나이다

아무도 글과 실지 않은 말을 길게하는 책은 찾치이다 글을 쓰려면 나든시절책의 머리에 글아닌 글을 쓰라 힘들때나 괴로울때에

李太白이 지은 詩가운데「筆落驚風雨詩成泣鬼神」……붓끝으로 떨어 三千마리를 잡으리오 마는 李太白은 어떤 名筆을 稱讚하는데 이 말을 썼다 나는 이 글을「筆落能動 三千萬」 이라고 고치어外大學生에게 주는 同時에 外大를 거쳐 나가는 사람들은 이 세계 三百萬의 머리를 깨우치어 옳은 길로 가게 할뿐만아니라 全世界 人類가 더좋은 生活을 할수있도록 影響을받을만한 글을 쓰기를 希望하는 바이다 글의 힘을 人格의 힘이다。(以上)

새로운 世界史를 創造하라

文敎部長官 李 瑄 根

나는 이 機會를 빌하여 여학생 諸君에게 賦課된 重大한使命을 强調하므로써 代身하려한다

世界 情勢가 大韓民國創建에 偉大한功績을 남긴者가 바로青年學徒이였고 大韓民國을 育成하고守護하기爲하여 血鬪하고 있는者가 바로여러분 學徒임이 分明하다 그實例로 지난歷史속에서 찾어볼때 바로己未獨立運動의 主軸의役割을 擔當한者가 누구였고 六·十萬歲運動과 光州學生義擧의 主軸者가 누구였으며 八·一五解放 直後 混亂과 赤色分子의 策動을 粉碎하고 大韓民國을 創建한者가 바로 누구였던가? 이제 國運은 또다시 重大한 危機에 直面하고 있다 公正한 良心을 가지고 올바른 知識을 攝取하고 正當한 批判力을 培養함으로서 眞理와 正義를 守護하라 自古로 敎育은 國家百年之大計라 하였거늘 特히 外國文化探求에 盡力하는여러분은 더욱 情熱과努力을 기울여 政治經濟 文化 產業에 크게이바지 하기를 바라마지 않는바이다 배우는것 그것은 바로 힘을 蓄積하고 敵과 싸우는것 以上의 意義가 있음을 銘心하여 저한度의 詩로「하나로」이 일곡이 歌唱한바「東方의빛 亞細亞의 燈불」이 되여야한다 以上

負荷된 責務를 完遂하라

民議院議長 李 起 鵬

「無」에서 「有」를만들고「有」를 發展시킨다는 일이 쉬운 일이라고도 할수있지만그것이얼마나 어려운길인가는 生活體驗속에서 넉넉히 알수있는일이다 더구나돗아보여서 한돗이되고 여기서하나의生産을 集成시킨다는 것은 決코쉽지않은일이다

이렇게볼때 外國語大學이 그릇을놓아 하나의 新聞을갖는다는것도 그中에하나라 大學에傳統이있고 學風이있음은 어느大學에서나 볼수있지만 自己의傳統과 學風에 基幹하여 그表現의 하나로서新聞을發刊하고 이로써 傳統을 더욱 빛내며 學風을더욱 振作시킨다는 것은 確固발을 發발을爲하여心身兩面으로 勇氣를 百倍할수있다고 보아 無妨할것이다 外國語大學은 世界的으로 大寫된 우리韓國의現實情에 비추어 그발은바 責務가 重大한同時에 修學中인 大學生諸君의 任務또한 重且大함을 느끼게한다 外大新聞이 創刊된다는말을듣고 이新聞을通하여 負荷된重責이 完遂되기를 비는바이며 敵과싸우고 眞理를實踐하는 敵과싸우는者가 바로 누구였던가? 이제 祖國은 또다시 重大한 危機에 直面하고 있다 公正한 良心을가지고 올바른 知識을攝取하고正當한 批判力을 培養함으로서 眞理와正義를 守護하라 自古로敎育은 國家百年之大計라 하였거늘 特히 外國文化探求에 盡力하는여러분은 더욱 情熱과努力을 기울여 政治經濟 文化 產業에 크게이바지 하기를 바라마지 않는바이다 배우는것 그것은 바로 힘을 蓄積하고 敵과 싸우는것 以上의 意義가 있음을 銘心하여 저한度의 詩로「하나로」이 일곡이 歌唱한바「東方의빛 亞細亞의 燈불」이 되여야한다 以上

新築 校舍는 不遠着工 될듯

大學 關係者들의 至大한 關心事가 되어오든 本大學 新築問題는 其間 交涉問題로 工事着工이 遲延되어 왔음은 旣知의事實이나 創設 當初에는 淸凉里에 校地로 定하고 新築코저하였으나 敎育的自然環境의 未備와交通의不便에서 오는 不良한 立地條件때문에 可及的이면 市內 某處로 定하기 爲하여 本大學과 政府當局間의 交涉이 進行되고오든바 어느程度의 合議를 보았다고하며 今明間 그全貌가判明되리라고한다 그리고 本大學當局者로부터 傳聞한바에依하면 本大學 新築設計圖及施設計劃의 特異한點은 大學建物自體의 雄大한建築모담 外大의 特殊敎育機能을充分히 發揮할수있도록 世界的인水準을가춘 敎育施設의 完備에 萬全을期할에있다고前提하면서實質的인 投入될建築基金은 壹大한額을 要한다고있다고한다

한 財團法人 韓國育英會財團 設立된 本大學은 UNKR 建築資材 援助를비롯하여 文敎當局에서도 文敎部에서 支出되는 4288年度 大學敎育基金中 2000萬圓을 本大學에 割當키爲한 財政的援助計劃案을 審議決定하여 數日內로國會에 回附할것이라고하는데 무엇보담 本大學이 지닌바 國家的인使命과 崇高한敎育理念及强力한 財政的인 確保는 오늘의 外大보담 明日의 外大發展狀이 자못 注目되고있다

多數의 外人敎授 來校豫定

一般 本大學에서는 文敎部의協助로인하 駐韓英國公使館을通하여 交涉中이든 英人敎授 招聘은 前公使「그레함」氏의 獻身的인 努力에依하여 英國政府當局과 연단 大學의 共同推薦으로 우리나라에 紹介된 英文學의 權威이신 Rainer敎授가 外國語의 最高敎育機關인 本大學의 英語科 專任敎授로서 現在 英語音聲學과 英文學을 敎授하고있음은 周知의事實이나 本大學當局者가 言明한바에依하면 英語科敎授를 駐韓佛公使館을通하여 오래전부터 交涉하여오든바 佛蘭西學界에서도 名聲이 높으신 高明한敎授가 佛政府當局의 推薦으로 가까운將來에 來韓할 豫定이며 本大學에서 앞으로 佛文學과 佛語를 敎授할것이라고한다 또한 本大學英語科 敎授로모시게된 一美國人敎授는 現在 美國을 出發하여 韓國으로向하였다고 傳해지고있다한다

外國語敎育爲해 器材 多數 入荷

國際關係 貿易家養成의 最高敎育機關으로서 外國語敎育의 철저을겨고있는 本大學에서는 外國語의 音聲을正確하게 배우고 發音하기위하여 매일錄音器 와이야錄音器等을 使用하고있음은 旣知의事實이나 2、30名 學生이 各各器材하나씩을 充分히 使用하여 外國人의 말을直接들으면서 귀와입을 訓練시킬수있도록 語學敎室備品等 多數物品을 購入中에 있든바 UNKRA 를通하여 美國으로부터 타이푸라이터 40臺등위시하여 錄音機 反響器 音響機 라디오等 科學的인 器材多數가 入荷하게되었다한다

不良留學生 直時召還을 本長官言明

民族과祖國의 隆盛發展을爲하여 先進國家의 優秀한 學術을 硏究修得코저 祖國의榮譽를 걸머지고 멀리 留學하고있는 海外留學生中 一部學生들의 無自覺한 現學的妄動에 對하여 外國人의非難이 藉藉한現今 卞外務部長官은 不良留學生問題에 關하여 다음과 같이 言明하였다 海外留學生中에서 國家施策과 體面을 더럽고 不美스러운 行動을 行함과에는 直時 旅券을 取消하고 召還할것이다 그리고 앞으로는 海外留學生은 愼重히 審査할것이라고 말하였다

過去一年間 (86年11月…87年10月) 外國留學生外務部統計에 依하면다음과같다

美國—941 佛—14 加奈陀—9 白耳義—9 西獨—5 伊太利—4、英國—3 和蘭—2 瑞典—2 中國—2 新西蘭—2 丁抹—1 比—1 合計 395名

上記海外留學生들이 先進國家에서 果然 무엇을 어떻게배워서歸國한後 如何한 責任部署를 擔當하여 祖國創建과 民族文化發展에 寄與할수 있을지 疑心치않을수없는 오늘날 自國의 歷史的인 實과 國際的地位로 覺醒하지않

待望의 良書 發刊

新界의 權威이신 本大學 李瀚商敎授는 多年間 史學硏究에 沒頭하시든中 世界史에對한 그릇된 史觀과 歷史常識을 除去함으로서 正確한 世界文化의 全貌를 分明히 把握할수 있도록 敍述된 東西洋史를 網羅한 綜合的인大著書의 發刊을 보게되었다

本著는 新史學「世界史」의 새로운 進路를開拓하게됨으로서 思想的混亂을 克服하려는 時代的要請에 應答은 勿論 靑少年 史學徒와 文化人의 絕讚을 받고있다

E·T·S 試驗 本大學에서實施

本大學에서는——美國人及美軍이 駐韓하고있는世界各地에 그들就學者의 便宜를圖謀하기 爲하여 美國大學及大學院에 入學할수있도록 各國에— 個處씩 Center 를 設置하여 世界的인 統合考試 (Educational Testing Service) 를 實施하고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本大學이 그 Center 로指定되어입이 Medical College Admission Law School Admissoin 을爲始하여 數次에 걸쳐 그實施를 보고있다

이試驗은 一年에 10餘次나있어 外國 靑年學徒多數가 本大學에 來訪하여 外大學生과 서로接觸하는 동안에 좋은 學友가될수있을뿐만아니라 各種의 思考尺度로서 學的인 眞摯 意見交換及對話를 通하여 相互理解를 促進하게하여 國際的親善을圖謀할수있는機會가 마련되지고있다

謹 告

今般 本大學 自治生活을 通하여 學內에서의 硏究自由와 眞理의 探究守護及 意思表示의 基本的인 自由權의 暢達을 爲하면서 各己 理論的인 批判能力을 培養하며 情緖와 敎養을 向上시킬機會를 얻어 建設的인 學內輿論을 反映시킬수 있는 外大學報 (國文版 外語版)을 發刊하게 되었음에 對하여 여러 學兄과 더불어 眞心으로 祝賀하는 바입니다

創刊號 編輯委員에 除하여 國民의 多大한 期待와 社會의 無限한 關心을 이끌어 온 外大의 權威와 信望을 提高시킬에足한 學報編輯이 되지못한 點에서 先 여러學兄에게 謝過드리지않을수 없사오며 또한 外大의 特性을 살려 讀者여러분께 많은影響을 끼칠 훌륭한 作品이 紙面關係로 다음號에 延載되게 되었음을 遺憾으로 생각하는 同時에 本大學의 發展을 爲하여 獻身的인努力을 傾注해주신 여러분께 眞心으로 深甚한 謝意를 表하는 바입니다

1955年 4月 11日

大學報編輯室 白

言語史的漫筆

助敎授 全 熙 洙

1

獨逸語의 Meister이란 語는, Latin 語에서의 借用語라고 생각하기 어려울 만치 獨逸的인 音聲을 가지고 있다. 古高獨語(Althochdeutsch) meistar, 中高獨語(Mittelhochdeutsch), meisret, 古低獨語 mestar, 低地獨語 meester, 앵글로색슨語 maegster, 英語 master 및 mister, 佛語 maistre를 거쳐 maitre, 伊太利語 maestro, 西班牙語 maertro等은 다 中世에 있어서 各種의 職業의 當事者를 가리키던 語彙였던 latin語의 magister 에서 起源된다.

獨逸에 있어서는 中世에 騎士階級에 속하지 않는 博識한 詩人을 그렇게 불렀었다. 그리하여 中世後期에는 Meistersinger이란 語彙가 Miunesänger(戀愛詩人)이란 語彙와 交替되었다. 伊太利語의 maestro는 現今에도 maestro Toscanini와 같이 특히 音樂의 師匠(敎師)를 意味한다. meister 는 뒤에 다시 市長 Bürgermeister (Bürger市民) 等의 『長』을 나타나게되었다. 新高獨語 (Neuhochdeutsch) 에서는 Meister이 여러가지의 職業과 職位를 表現하기 위하여 使用되게 되었다. 例를 들면 Altmeister 職工組合長, Großmeister 騎士團長, Rittmeister 騎兵大尉, Bergmeister 鑛山長, Schulmeister 校長 Zunftmeister 組合長, Stallmeister 馬術練習所長 等,

Latin語의 magister이란 말은 magis (獨長 mehr, 英 more) 란 副詞에서 起源된다. 그러므로 magister이란 다른 사람들의 위에서는 사람이란 뜻이다. 거기서 敎師 또는 先生님이란 뜻을 가지게 되었다. "Faust ist magister und Doktor" 이란 Goethe의 "Faust"에서의 magister 은 Baccalaureus와 Doctor學位 사이의 學位를 가리킨다. 이制度는 現今 歐洲에서는 없어졌으나 美國에서는 存續된다. 即 Bachelor, master, Doctor. Magister의 派生語 magistratus는 「로마」에서는 官職을 나타내었었다. (現今의 英語 magistrate, 佛語의 magistrat, magistrature 와 比較하여보라)

Latin 語의 magis 는 다시 magnus, -a, -um (큰) 이란 形容詞로 거쳐 印歐語 (Indo-european Languagues, Indogermanische Sprachen) 의 語根까지 거슬러 올라 갈수 있다. 그런데 magis 의 反對는 minus이다.

이 minus에서 現今 歐羅巴諸言語에서 널리 使用되는 minister 이란 語彙가 起源된다. 封建制度에 있어서 Fürst 君主가운데에서 낮은사람인 宰相을 가리켰던 것이다. 同語源에서 Minute <lats pars minuta horae (時間의 적은 部分) Menü (19世紀에輸入) <Fr. menu <lat. minut (작은 料理들의 列擧) Menuett (18世紀에輸入) <Fr. menue (스텝이 작은 댄스, 同 minuet 는 古典音樂의 形式의 하나로 交響曲의 第三樂章에 흔히 보이는 用語이다. 끝으로 美術用語 Miniatur (작은 그림, 微細畵) 는 佛 miniature, 英 miniature 와 함께 伊太利語 miniatura에서 輸入된것인데, 이것은 上記한 다른 語彙들과는 달리 minus에서 온것이 아니고 minium (鉛丹=붉은 染色料) 에서의 派生語인데 이 말의 起源은 마찬가지 아니고 『바스크』 語이리라고는 推測한다.

2

Brot (빵) 을 나타내는 [illegible] 의 古語는 Laib이다. 그러나 이것은 現今에 있어서는 ein Laib Brot (한덩어리의 빵) 란 句에 있어서 使用될 뿐이다. Laib은 그것과 同一한 起源의 英語 loaf 와 함께 現今에 있어서는 「빵」이라는 뜻보다 「덩어리」란 槪念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Laib의 中高獨語및 古高獨語는 leip (또는 leib) 이었고 古高獨語 初期에는 hleib, 『고트』語는 hlaifs (Gen, hlaibis), 『앵글로색슨』語는 hlaf (여기서 英語의 loaf 가 起源되었다.) 이었다.

Laib이 「빵」이란 意味를 아직 지니고 있는 것은——勿論 多少의 音의 變化는 되었지만——『슬라브』語들에 存在한다. 즉 露語 chlebu, 『체코』語 chlebicek, 『리트아니아』語 klepas 等은 다 古代 『게르만』語에서의 借用語들인 것이다. 이말은 『핀』語에도 輸入되어 lóipa라고 한다.

『고트』語와 古高獨語에는 各各 gahlaiba, gileibo란 合成語가 있었는데 그뜻은 Brotgenosse——우리말로 表現하면 「한솥의 밥을 먹는者」란 것이다. 이語는 라틴語의 panis 「빵」과 cum (또는 com) 「함께」이란 前置詞의 成句 cum+panis에서은 Kompanie와 好對照를 이룬다. 이語는 1500年頃 佛語 compagnie의 借用語로 이것은 다시 中世『라틴語 companio (=Brotgenosse 「빵」을 함께 먹는 者」) 에서 起源된다. 이말은 現今 歐羅巴 諸言語에서 두루 쓰인다, 즉 英語 company, 佛語 compagnie, 伊太利語 compagnia, 西班牙 compania, 露語 kompanija 等 이말들은 「빵」을 함께 먹는 者」란 뜻에서 現今에는 會社. 中隊란 意味로 變遷되었다,)

그런데 여기서 「빵」이란우리말 外來語의 由來를 살펴보면 이것은 日本語를 거쳐은 『포르투갈』語 pa이다. pa은 佛語 pain, 西班牙語 pan, 伊太利語 pane와 함께 모두 上記한 『라틴』語 panis에서 起源된 것이다.

Laib와 關聯性을 가지는 재미있는 由來를 가진 말이 있으니 그것은 英語의 lord와 lady이다. lord의 『앵글로색슨』語는 hlaford, hlafweard, 『고트』語는 hlaibwards 였고 lady의 『앵글로색슨』語는 hlǽfdige였다. 前者는 Brotwar 「빵을 지키는 사람」이란 뜻이고 後者는 Brotverteiler 「빵을 나누어 주는 여자」——'domina' 主婦——란 뜻이었다, 그런데 前半部 hlaf 「빵」가 省略되고 後半部만 各各 lord, lady로 變形되어 今日에 이른것으로 이것은 그 옛날 家長制度時代의 主婦와 主人의 그들에게 隸屬되는 사람들에게 對한 關係를 表現하는, 意味論으로 재미있는 言語現象이다.

文化部에 주어지는 命題

英語科 文化部 權 泰 和

文化! 萬物之中에 오직 理性의 所有者인 人間만이 지닐수 있는 崇高한 참으로 神聖한 槪念이다

마치 물이나 空氣의 存在價值가 너무나 偉大한것이럿서도 너무나 普遍的이기때문에 그의 고마움을 恒時 느끼지 않듯이 文化란 地球위에 人間이 創造된以來 理智的으로 生活을 營爲할줄 아는데서부터 時間的으로 空間的으로 이루어지고 이루어져가는 人間社會의 全體이기때문에 우리는 늘必要 文化人 文化生活을 소리치면서도 其實은 漠然한 觀念으로 文化를 生覺하고 있는便이 많은듯하다 이는 實로 文化人間生活을 文明되게 努力하는 過程이 쌓이고 쌓여서 發展하는人間生活內容 全體를 總括하는 것이기때문에 果只 文化된 環境속에 태어날았다고해서 文化라는 말과 곧을 많이 듣고 보았다고해서 文化人이라 文化生活을 한다고 自負하는것은 錯覺도 甚하다 할것이다

即 文化란 一朝一夕에 이루어지는것이 아니라 悠久한 世紀를 通하여 其數를 헤아릴수없는 有名無名의 先烈先覺들의 살뜸遺産의 蓄積인것이다 우리는 이蓄積된 文化基盤위에서 文化環境의 惠澤을 입고있는것으로만 자칫하면 이런錯覺을 진짜로 여기고있기가 쉬운것이다 眞實로 文化人으로 自負하고 또는 文化人이되고저 할진대는 文化發展에 貢獻하는 直接的인 行動이 必要한것이다

이 文化行動은 이미 文明이發達된 오늘날에 있어서는 個人活動이 아니라 各個人의 素質 敎養및 모든 文化財를 同志와더불어 有機的으로 連結活用하여야 時代 時代의 人間社會의 必然的인 要請과 指向을 재빨리 捕捉하고 또는 이것보다 앞서 나가 人間生活을 보다더 文明되게 發展시키야 할것이다 우리外大도 果然 이時代의 必然的인 要請과 指向에서 應當 創設을 보게된것이니 여기에 모인 우리 外大生들은 國際時局에 敏感하고 開化하기 爲하여 修途하고 있는 줄로 믿는다

한더구나 文化 모든人間에서는 人間生活內容全體를 內包하기 때문에 文化人이 아니고서는 外交도 諸國際事業도 할수없다는것은 明히 아는事實이다 故로 外大의 各文化部는 外大가 지닌 課業의 全體面이면서도 必然的으로 先端에 位置하는 것이리라

더구나 오늘날 美英의 文化勢力이 汎濫하게 浸透되어오고있는 國際時代에 處하여 있다는 것을 認識하면 英文科 文化部에 주어지는 課業과 그 責務는 無限히 큰 것이며 可長 名譽스러워야 할것이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文化部는 漠然한 것이라고 認識하는 순치가 보이기쉬운것은 文化의槪念이 너무나 偉大하고 광장하고 廣範圍한 問題인데다가 今日의 우리가 民族 國家意識이 薄弱하고 國歷에對한 大義明分이 明瞭히 느껴지기 어려운판에 權力謀利가 橫行하는 餘弊로 當場에나오는 利害關係부터 目前에 그려지는 華麗한名譽感이 문득 文化部의 位置를 浸潤한것으로 憂鬱한것으로 漠然한것으로느껴지게하고 있는것같다 文化發展에 貢獻하려는者 모름지기 遠大한理想을 품고 大海와같은 文化創造에 高貴한한石이 되고저 文化同志들과 손잡고 個人의素質 力量을 다기우릴때 그때들은 千秋萬代에 빛날! 文化라는 水成岩속에 옛文化들이야기할 靈魂의 不死의 化石이될것이리라!

然하야 外國語를 배운다는 것은 이미 國家對國家의 活動이며 自然 이活動에는 自己民族을 自己國家를 代表하고 나스는 行爲인故로 民族과國家觀念을 透徹히지녀야하며 結局은 文化문화는 사람으로서의 不撓不屈 그리고 高貴한 人生觀과 너무나 뒤떨어진 우리文化를 開化시키려는 意志와 그리고 石이 되려는 死生觀으로써 確固히 세워놓아야 할것이다

設令 外國語를 自己 혼자만의 敎養을 爲해서 배운다 하드래도언젠가는 外國語로 배운 內容을가까운 사람과 이야기 하게될때는 이미 國家對國家의 活動責任은 絕對的인 것이다

이렇게 國際時代에 處하여 文化의交流 外交活動이 高速度로 이루어지는 무렵에 外大가 그의 所用될 人材를 골아들여 養成하게된것은 勿論 國家社會의 必然的인 要請이며 學校나 學生이나 이 要請에 順應하기 爲하여 最大의 努力으로 공부해야 할것이며 이 中에 文化를 공부하는者 時代와 文化를 一考하여 文化部를 擇하는 意義를 더욱 옳고 굳게 해봄이 좋을것이다

누구나 저日本이 開化한 所謂 明治維新을 부러워할것이리라 왜냐하면 그때는 오늘날 우리나라에와같이 外國文物이 洪水처럼 밀려들지 않고 그들은 自覺된 民族國家意識아래 國家門戶를 開放하고 自己民族 固有文化속에 適當한 外國文物을 能動的으로 마음껏 同化하여 洋化되기는커녕 期於코 世界水準에까지 올라가 오히려 八紘一宇를 내세워 世界征服의 野望까지 露呈해지 않았든가! 結局 不義의 野慾을 挫折되고 敗戰國으로서의 쓴맛을 보았지만 현재 民族國家觀念과 그에對한 死生觀이 굳게서있는 나라이기때문에 굉장히 많은 外來文物을 果敢히 吸收同化하여 復興과 아울러 그나라 有史以來 보지못한 程度에 文明時代를 創造하고 있는것이 아닌가

오히려 外國人들에게 自己文物을 紹介하는한편 外國人과 結婚한 女子들은 外國人男便에게 自國의 飮食을먹이며 衣服을입히며 禮法을 가르치며하여 外人까지도 저의들 것으로 同化시켜버리려는 氣勢로 發展을 거듭하고있지않은가 그러나 우리의 處地를 보자 三十七年間 世界文化가 高速度로 發展해가는 동안 우리는 暴惡無道한 倭敵刑務所안에 三千萬겨레가 모다가쳐 있었으니 文化는 孔子曰 孟子曰 格으로 觀念에서만 存在했을뿐이고 심지어는 民族文化의 根本生命인 言語 文字 까지도 빼앗겼던判다가 엉큼모르게 自由의몸으로八一五解放을 當하여燦爛한外界를對하니 어리둥절하는 地境에 外來文物은 제멋대로 洪水처럼 밀려들어오기 시작한다

이들과 굼주림에서 于先 直感的으로 좋게만 보이는 外國文物을 眞正한 利害關係의 批判없이 무턱 받아드리리고 있지않은 기美飯 香煙 口味 感覺的으로 매긴 한것들을 모아 눈코 뜰 뒤 살틀지를아하는 外國文物들이 虛榮과 華麗를 노래하며 文化의 先端을 가는듯 가진 醜態를 부려가며 分別없는 感覺을 誘發하며 疲廢한 이民族을 더욱 顚廢에로 박투고 있지않은가? 이런속에文化事業에 뜻을 품은 文化部 同志들은 外來文物이 시고럽고 搖亂스럽게 汎濫하는 文化交流의洪水狀態를 民族文化基盤위에서 冷靜硏究하고 選別整理한것을 取捨하여 醇化시키고 文化發展에 寄與되는 모든 科學의 學理와 實質的인 文物制度를 于先 우리말로 비꾸어놓아 外國文化를 永久的으로 同化시키는 첫段階를 敢行해야 되는것이다

왜냐하면 外國文化內容을 우리말로 바꾸어 놓는다는것은 永久性을 附與하는 絕對的인 同化作用이기 때문에 二時代가 盲目的으로 外來文物에 動搖될때도 覺醒된 時代에게와 文化向上에 偉大한 役割이 되기때문이다

如何間 外國에 種子로 가지 않는限 조선말 조선글의 정메신 림자리를 공부히 發展시키려는 意圖를 품고 敎育 言論 出版 通信 飜譯 等等 어느길을 擇하든지 個人의 素質과 力量을 同志들과 有機的으로 活用하여 漠然히 큰 文化槪念에서만 헤메지말고 그의 一分野를 開拓할수있는 文化役軍이 되도록 文化部가 指向하는 領域 지붐안에 配置될수 있기를 懇切히 바라는바이다

四二八八年二月二十四日

人間의 社會的好評

偉大한 人物과 陋劣한人物과의 對社會的行動에 있어서의 相違를 簡單히 槪括하여 말하기는 困難하다 陋劣한 人物은 社會가 要求하는바에 屈하는것이라고 하는것은 決局 普通的인 事實이 아니다 오히려 그와 反對로 社會에 對하여 不斷히 不平을 품어대는 人間에 더욱 陋劣한 人間이 있다싶다。그와 같은 人間은 天才人을 自處하며 同時에 公言도 하고 모든 德全한 規律이나 卑近한職分을 拒絕한다 그리하여 나중에는 怨恨과 焦慮가 극에 悲慘한 零落을 告하게 되는것이다 이와反對로 가장 偉大한 人物이면서 생각지도 못한 겸虛한 마음으로 모-든方面의 如何한形式의 일이나 敎訓도 甘受하여 받아드리려는 態度로서 別로 남의 눈앞에 나타나지도 않은 이로도 있다 그들은 누구에게나 가로침을 받으며 누가 무엇을 부탁해도 즐겨 行하는 者다 그리고 힘드는 일로써 自己에게 損害가 있거나 남이 面目에 關한일이라고 생각하는 일까지 즐겨 行하는 것이다

이럴에도 不拘하고 社會와 그들間에는 面目의 問題가 아니라 어떤 事實의問題에 關해서 언젠가는 꼭 紛爭이 惹起되고만다 即 이와같은 偉人은 언제일가는 반드시 侮辱이 보지못하는 어떤것을 보게된다

이때 그들은 口論으로써 或은 雄辯으로써 世俗的인 見地와는 달리 自己가 본대로의 것을 主張하여 마지않는다

이에對하여 社會는 한결같이 그들을 向하여 그들의 所見을 꿈으려고 努力한다 할지라도 決코 꺾지는 못할것이다

여기에 萬一 社會가 그들을反對할적에는 그들은 往往 自說을 고집한다하여 갖은 艱難을 겪어야하며 심지어는 死刑에 處하게될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런것에는 그들은 無關心하다

萬若 社會가 그를 主義에 特히 反對하지 않을때는 그들은一生 그主義를 부르짖고부 放棄되어 물보지않거나 或은 미치광이로 看做될지도 모른다 그러나이와같은것을 그들은 相關하지않는다 그들은 自身이 事實이라고認定하는바를 그대로 부르짖으며自己들의 左右에서 일어나는 紅濤의 大波가 울부짖은것에도 一切귀를 기우리지 않은다 이와같이하여 그들과 社會와의 사이에는 어느때이든지 반드시 紛爭이 일어날것이다 그러나 陋劣한 人間은 社會가 法規해 주지않은 동안에만 社會에 對하여 그들은甘受하며 머리를숙인다 그리하여그들이 한번 社會의法目을 끝났다고 생각할때는 그한번 拍手해줄것으로 생각하면 무엇이나 지껄이게 된다 이렇게해서 陋劣한人間과 社會와는 항상 서로 圓滿히 携帶하여 가는것이다 그렇다고는 하지만 陋劣한 人間의 執拗와 偉大한人物의 고것과는 外見上 極히 類似한일도 때로는있으나 그러나 其一 참된人間이兩者를 絕對히 峻別한다면

執拗함은 自我를 말함으로며 堅忍의 執拗함은 敵에 항때의 그것이라는것을 알아야 할것이다

=「마스킨」의 藝術經濟論

S. B.. S譯=